

참된 치유의 망대 의사 누가 -복음으로 여는 누가복음-

사무엘상 16:23, 누가복음 10:17-20

정윤돈 목사님

* **삼상16:23**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축 사울이 상쾌하여 낮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 **눅10:17-20** 칠십 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237나라 5천 종족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현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본문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사울에게 악령이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축 사울이 상쾌하여 낮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흑암에 싸이면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마약을 한다. 마약은 속이는 것이다. 거짓말로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이다. 너무 행복하고 상쾌한데 잠시 뿐이고 결국 속는 것이다. 여러분은 호르몬에 속으면 안 된다.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호르몬까지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내 마음과 생각에 어떤 것이 심겨지느냐에 따라 다르다. 마귀는 화날 때 화내고, 미우면 미워하라고 속인다. 마귀가 그런 세상 나라와 흑암 나라의 메시지를 준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다. 그 순간에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한다. 메시지가 먼저 떠올라야 하는데 마귀자녀처럼 절망하고 낙심한다. 그게 악령에 들린 상태다. 마귀가 우리 앞에 무섭게 나타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게 마귀가 들어가는 것이다. 정확한 복음으로 체질이 변화되지 않은 사울에게 악령이 다시 들어갔다. 은혜 받았다가 다시 돌아간다. 내 체질이 완전히 복음화되지 않은 것이다. 끊임없이 체질을 복음화해야 한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니까 계속 종교로 빠지고 율법에 빠진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순간순간 우리가 이럴 수 있다. 창세기 3장에만 속는 게 아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성령충만이 약해지면 마귀에게 끌려간다. 울무, 틀, 함정에 빠진다. 우리는 사울처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의사 누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어야 할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 크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전도인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다락방과 지교회와 전도캠프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다락방을 할 때 사탄이 꺾이고 흑암이 무너진다. 지교회와 전도 캠프, 선교현장에 가지만 해도 흑암이 꺾인다. 의사 누가는 이렇게 복음으로 현장을 치유하는 소중한 기록을 남겨서 참된 ‘치유의 망대’가 되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러한 응답 받기를 원한다. 참된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후대 램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저도 곳곳에 망대를 세울 것이다. 탁구망대, 캘리그래피 망대를 세우고 있다. 목사님은 문을 열고 여러분은 그 현장에서 생명 걸고 전도현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다. 뭘 하든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라는 말이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누가복음은 전도자 누가가 당시 최고의 서밋인 데오빌로 각자에게 보낸 전도편지이고 복음편지이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가장 잘 그려져 있다. 인간인데 하나님으로 오셨다. 의사 누가는 과학적인 사람이다. 상식적으로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라는 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누가는 그 일들을 깊이 생각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다 인터뷰를 했을 것이다. 안 믿는 게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게 직접 확인해서 로마 데오빌로 각자에게까지 전달했다.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의 육신 뿐 아니라 마음, 생각, 영혼까지 치유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누가는 몸을 치료했지만 치료 안 되는 원인 모를 질병이 너무 많다. 예수님은 다 치유하셨다. 누가는 자신이 의사였기 때문에 육신적인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치유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영원한 ‘치유의 망대’와 ‘복음의 망대’를 세웠던 것이다. 이번엔 만난 대만의 류민허 목사님은 홍콩 출신인데 13살 때 마약을 하면서 조폭에 가담해 10년 동안 마약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약을 끊고 반 죽도록 맞아서 조폭 단체에서 나왔다. 류민허 목사님을 받아준 곳이 기독교 단체였고, 홍콩에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대만으로 보내줬다. 나중에는 자기 화교민족을 위한 치유센터를 만들고 사역한 지 20년이 되셨다. 한국처럼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걸 위해서도 생을 거는데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

1. 먼저 누가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 (1)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은 아니다.
- (2) 누가라는 이름의 뜻은 그리스 헬라어로 ‘빛나다’ 혹은 ‘총명하다’, ‘빛을 준다’는 뜻이다.
- (3)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다. 그는 수리아의 안디옥 출신의 그리스 사람이었다. 또한 누가는 순수한 이방 사람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사람이다. 성경 64권을 기록한 사람은 유대인이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방인 누가가 기록했다. 그는 TCK 출신으로 차별 받을 수 있었지만 최고의 ‘치유의 망대’가 되었다.
- (4)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의사 누가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아니라 사랑받는 의사 같은 누가처럼 되시기 바란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의사 누가는 전도자 사도 바울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역할을 사실적으로 담당한 너무나도 필요하고도 귀한 제자였다.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 바란다. 목사님과 사역자들은 여러분이 동역자, 식주인, 보호자가 되시면 너무 감사하다. 누가와 같은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헌신과 교회에 대한 희생은 여러분이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교회에서 빠지고 요구하고 맡은 일도 제대로 안 하면 안 된다.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치유의 망